

평범하고 잔잔한 매력 어느새 흑 스며든 매력

정덕현의 페르소나>> 김다미, 서서히 빠져드는 은근한 반전의 미학

데뷔작서 살인병기 역으로 주목
뜻밖의 청춘·여운 긴 워맨스까지
평범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필모

순수하고 천진난만한 얼굴 뒤에
툭 튀어나오는 서늘한 카리스마
겉으로 드러나는 껌보다 강렬한
내면 깊숙이 우러나오는 아우라

“천천히 타세요. 조심히 타세요. 오라이!”
아마도 1980년대 학창 시절을 보낸 분들
이라면 이 낯선 광경이 익숙하게 다가올
터. 지금처럼 카드를 대면 ‘틱’ 소리와 함께
결제되는 간편함 따위는 없었지만, 버스안
내양이 있어 버스바·회수권을 직접 받고 손
님들을 내려 주고 태워 주던 ‘인간적 정’은
있었던 시절의 광경. JTBC 토·일 드라마
‘백번의 추억’은 그 시절 버스안내양 고영
례(김다미)와 서종희(신예은)의 우정과
사랑을 담은 드라마다.

그 시작은 100번 버스의 등장과 손님들
을 태우고 내리는 버스안내양 영례의 모습
으로 문을 연다. 친절하지만 앓된 목소리로
“오라이”를 외치는 영례는 버스 안에서 틈
틈이 자그마한 메모장을 들여다보며 영단
어를 외운다. 때로 차멀미가 나는 지 눈을
감박이기도 한다. 그럼에도 버스안내양으
로서 할 일을 하는 그녀다. “경인은행 앞.
졸다 못 내려도 책임 못 져요! 미리미리 준
비하세요!”

짧은 장면이지만, 영례라는 인물을 압축
적으로 설명한다. 차멀미에도 버스안내양
으로서 맡은 바 일을 톡 부러지게 하고, 열
심히 공부해 무언가 다른 꿈을 좇는 인물이
다. 평범함 속에 담긴 비범함. 강렬한 모습
으로 비치진 않지만, 서서히 은근하게 다가
서는 특별함이 이 인물에서 느껴진다. 실제
로 이 작품에서 영례와 버스안내양으로 만
나 둘도 없는 절친이 된 종희는 그녀에 관
해 이렇게 말한다.

“너 진짜 제대로 ‘은또’구나? ‘상또라이’
보다 무섭다는 ‘은근 또라이’.”

영례라는 인물의 이 은근하면서도 튀는
캐릭터는 김다미를 만나 더 특별해진 느낌
이 든다. 그건 김다미라는 배우가 가진 매
력이기도 하다. 2018년 ‘마녀’라는 영화로

▶ 배우 김다미가 지난 11일 JTBC 드라마 ‘백번의
추억’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. 연합뉴스

▼ 위부터 배우 김다미가 출연한 ‘마녀’ ‘이태원 클
라쓰’ ‘백번의 추억’의 한 장면.



충무로에서 ‘괴물 신인’이 나타났다는 소리
를 들었던 김다미를 떠올려 보라. ‘마녀’에
서 그녀가 맡았던 구자윤이란 인물은 조용
하고 평범한 고등학생이지만, 순식간에 냉
혹하고 무자비한 초능력 살인병기로 돌변
한다. 1500대 1의 경쟁을 뚫고 발탁된 김다
미는 이 역할에서 특유의 순수하고 천진난
만한 얼굴 뒤에서 난데없이 튀어나오는 서
늘하고 폭발적인 반전의 카리스마를 선보
이며 평론가들은 물론 대중에게 강렬한 인
상을 남겼다.

‘마녀’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뒤 첫 드라
마 데뷔작으로 주연을 맡은 ‘이태원 클라
쓰’의 조이서 역할은 어떤가. 천재 소시오
패스라는 캐릭터에 딱 맞춘 연기를 보여
주지 않았다. 차가우면서도 당돌하며 시크
한 면모로 시청자들의 시선을 단박에 잡아
끌더니 뒤로 갈수록 사랑에 솔직하고 당당
한 모습에 시원한 카타르시스를 안겨 줬다.



차갑고 서늘한 면모와 사랑스럽고 순수한
모습을 자유자재로 오가는 배우의 탄생이
었다.

이러한 강렬함이 김다미라는 배우 전
체를 말해 주는 건 아니다. 그 후 최우식과
다시 만나 뜻밖의 로맨스 연기를 펼쳐 보였
던 ‘그해 우리는’은 보다 평범하고 현실적
인 보통의 청춘을 그려 냈다. 여기서도 섬
세한 내면 연기로 대사보다 깊은 감정선의
밀도를 만들어 내면서 평범해 보이는 멜로
에 깊은 여운을 줬다.

이후 ‘소울메이트’에선 자유분방한 인물
안미소 역할을 맡아 고하은(전소니 분)과
인상적인 워맨스를 선보였다. 특히 ‘소울메
이트’의 워맨스를 김다미는 단순한 우정 차
원이 아닌 ‘사랑의 한 형태’로 그림으로써
청춘의 풋풋함이 묻어나는 귀여운 멜로의
정경을 완성했다.

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보면 ‘백번의 추
억’은 지금껏 김다미가 쌓아 온 다채로운
연기 편린을 발견할 수 있는 작품이다. ‘은
근 또라이’ 영례는 김다미 특유의 서서히
빠져들게 하는 반전의 연기 미학을 보여 준
다. 평범하고 순박해 보이지만, 그 안에 숨
겨져 있던 꿈과 당찬 면모가 슬쩍슬쩍 드러
날 때 시청자들은 이 인물에 몰입할 수밖에
없다. 겉으로 보이는 면과 숨겨진 면모의
반전이 만들어 내는 이 매력은 ‘마녀’에서
도, ‘이태원 클라쓰’에서도 김다미에게서
발견됐던 것들이다.

또한 1980년대 복고적 시·공간에서 버스
안내양이라는 직업을 통해 보여 주는 일상
의 모습은 ‘그해 우리는’의 보통 청춘의 면
모를 떠올리게 한다.

‘백번의 추억’에서 영례는 이른바 ‘K장
녀’로 불리는 생활력 강하고 동생들을 챙기
는 당대 가난한 가정의 전형적인 소녀가장

이지만, 김다미는 여기에 특유의 긍정적이
고 낙천적 면모를 더함으로써 신파적인 느
낌을 최소화한다.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
건 이 작품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종희와
의 워맨스다. 이는 다분히 ‘소울메이트’의
워맨스를 상기시키면서도 ‘백번의 추억’만
의 복고적이고 순수한 색깔로 변주된다.

그녀의 ‘은근한 매력’은 어디서 나오는
걸까. 그것은 겉으로 애써 드러내는 외향적
연기 방식이 아닌 내면 깊숙이 파고 들어가
는 김다미 특유의 연기 접근법에서 비롯된
다. 실제 내향적 성격인 김다미는 남다른
캐릭터 이해도를 바탕으로 작품에 임하는
배우다.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
다. 캐릭터 감정에 공감하고, 그 감정 밀도
를 충분히 내재화한 뒤 작품에 임한 결과
매력이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다.

애써 “나는 매력적”이라고 외치는 게 아
니라 그 매력적인 면을 밀도 있게 품고 있
어 저절로 밖으로 튀어나온다고나 할까. 김
다미의 은근함은 그만큼 자연스럽다는 뜻
이기도 하다.

흔히들 매력이라고 하면 당장 눈에 띄는
‘끼’에 가까운 무언가를 떠올린다. 하지만
진짜 매력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
면에 쌓여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흘러나오
는 어떤 것이 아닐까. SNS 시대 저마다 자
신의 매력을 뽐내고자 연출하지만, 진짜 매
력은 내면 깊숙한 곳에서 서서히 흘러나와
빠져들게 만드는 은근함에 있다는 걸 김다
미는 보여 준다.



필자 정덕현은 대중문화평론가로
기고·방송·강연을 통해 대중문화의
가치를 알리고 있다. MBC·JTBC
시청자위원을 역임했고 백상예술대
상·대한민국 예술상 심사위원이다.